

KBS N

magazine

JULY. 2016

VOL. 04

*N*joy
summer!



KBS N

magazine

JULY. 2016

VOL. 04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를 갖게

김우빈 배수지 임주환·임주은 극본 이경희 연출 박현석 차영훈 기획 KBS 인국방송 제작 삼일네트웍스 inq 2016.7.6 pm10:00

표지 이야기
7월, 무더위를 피해 남국의 섬으로 훌쩍 날아가고 싶은 날이다. 그 마음을 구름 속 표지에 담았다.

일러스트레이션 페니피디



N special

떠나요, 여름 속으로

- 06 그녀들의 특별한 휴가
- 10 KBS Kids 출발 키즈 드림팀, 지구 한 바퀴 체험전
- 12 WATER BOMB 2016
- 14 On air
김우빈, 배수지 주연의 <함부로 애듯하게>
- 15 N program
엄마는 고슴도치, 불평등한 야구의 성지
- 16 Review
KBS N Sports 아이러브 베이스볼
- 17 N partner
축구로 맺어진 인연, KIKA
- 18 N challenge
KBS N 인턴 현장교육
- 20 N news
우수직원 8인 해외포상휴가
- 22 Notice
'KBS Kids 출발 키즈 드림팀'이 궁금하다

KBS N Magazine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6. 07. 04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297
기획 홍보팀 이용주, 최고은, 이지희
제작·디자인 디앤씨 www.thednc.co.kr



www.KBSN.co.kr

<KBS N 매거진>은 매달 첫째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BS N 홍보팀 pr@kbsn.co.kr

떠나요,

여름 속으로



7월,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무더위를 피해, 지하철 2호선처럼 빙빙 도는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야근의 고단함도, 불금의 설렘도 잊고 어디 남국의 섬에 꼭 박히고 싶다.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에 그렸다 지우는 바캉스 계획. 이국의 섬이 아니면 어떤가. 주말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당신은 당신만의 여름을 즐길 자격이 있다. 생각을 접고, 일단 떠나자!

온다는 비는 오지 않았고, 날은 덥고 습했다. “언니, 올해 여름휴가는 못 가겠지?” 조은지 아나운서의 말에 김보경 아나운서는 “스케줄상 어렵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여름휴가는 먼 내일로 미뤘다. 그래도 틈틈이 심표를 찍어줄 시간이 필요했다. 모처럼 쉬는 날, 두 사람은 밀린 잠을 청하는 대신 재충전을 위한 여행을 선택했다. 가까운 김포로 갔다. 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좋았다. 풀에서 물장구치고, 노란 금계국이 핀 오솔길을 걸었다.

둘은 입사 동기다. KBS N Sports에서 활약하는, 핫한 신입 아나운서다. 6개월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다. 아나운서 교육을 소화하고, 경기를 모니터링하고, 선수 인터뷰를 준비하고, 이번엔 코파 아메리카의 새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했다. 조은지 아나운서에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물었다. “11시 되면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한다는 거? 뺏속까지 직장인이 다 됐죠.” 같은 질문을 김보경 아나운서에게 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있어요. 이 일을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공감대가 있죠. 그래서인지 팀원들에게 끈끈한 전우애 같은 걸 느껴요.”

어떤 것은 변했지만,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았다. 여행지의 풍경은 달라도, 여행의 본질은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이제 김포에서 파주로 넘어간다. 평일이라 도로는 한산하다. 여행 테마 카페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다시 말이 많아진다.

김보경 은지야, 너 다음 주부터 일주일 휴가라고 하면 어디 갈 거야?

조은지 일주일만 바라지도 않아.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오사카 여행이면 충분하지. 나 이자카야 좋아하잖아. 낮에 맥주 한 잔 하고 도톤보리 한 바퀴 돌 거야. 그러다 또 이자카야 가고, 나와서 또 걷고, 여행은 계획 없이 떠나야 제맛이지.

김보경 그건 그래. 내가 작년엔 혼자서 런던을 여행했거든. 대영 박물관을 30분 만에 돌았을 거야. 박물관, 미술관은 내 취향이 아닌가봐. 식도락이면 또 모를까.(웃음) 런던 근교의 마을을 돌다 우연히 한 성당에 들어간 적이 있어. 거기서 울고 있는 노부부를 봤는데,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 들더라. 그런 기억은 참 오래 가.

조은지 여행이 그런 것 같아. 3년 전에 친언니랑 유럽으로 배낭 여행을 다녀왔어.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야간열차 침대에 누워 국경을 넘고 그랬지. 그중 스위스가 가장 기억에 남아. 물가가 너무 세서 돈 아끼느라 호텔 조식으로 나온 빵을 딱딱 눌러 담아 종일 그것만 먹었지. 인터라켄에서 호수 보면서 비에 젖은 빵을 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그나저나 언니는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

그녀들의 특별한 휴가

김보경 · 조은지 아나운서

당일치기 여행이었다.
이날 하루만큼은 김포가 세부였고, 파주가 런던이었다.
두 아나운서의 소소한 여행에 동행했다.





조은지 아나운서



김보경 아나운서

김보경 난 부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 가고 싶어. 그동안 모은 월급으로 9월에 부모님 유럽 여행을 보내드릴 생각이었거든. 티켓도 다 알아봤어. 이탈리아로 들어가서 영국으로 나오는 걸로. 그런데 엄마가 자신이 없다는 거야.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겁을 내서. 전에는 잘 다니셨거든. 그래서 내가 모시고 싶어.

조은지 그 말 들으니 작년에 다녀온 세부 여행이 생각나네. 우리 집이 7명 대가족이야. 부모님, 우리 삼남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해서. 사실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물속에서는 맘껏 걸을 수 있어 그런지 수영장에 자주 가시더라고. 같이 수영하다 정말 오랜만에 할아버지 등에 업혀봤어.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짠하면서 좋더라고.

김보경 여행이란 게 여유잖아. 마음의 여유. 아직은 신입이라 배울 것도 많고, 잘하고 싶은 것도 많고... 멀리 떠나도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 빨리 성장해서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조은지 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포항에서 K리그 양동현 선수 인터뷰하고 나서 처음으로 "잘했다"는 소릴 들었거든. 그때 정말 기뻐. 그런 말을 자주 들도록 해야지. 언니는 뭐 기억나는 말 없어?

김보경 내가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먹지 마"야. 내가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가족들이 야식으로 치킨을 시켰는

데, 뭐든 잘 먹어야 한다며 챙겨주던 아빠가 갑자기 나서서 "너 내일 방송이니까 먹지 마" 하는 거야. 다리 한 점 소스에 찍어 들고 방으로 도망치는데, 정말 서럽더라. 바닥에 소스 막 떨어져 있고.(웃음)

조은지 그 마음 내가 알지. 내가 몇 달 동안 방울토마토만 먹고 열심히 다이어트 했잖아. 요즘은 갈라만시로 바꿨지만. 언니도 알지?

김보경 아, 그 쓰고 시큼한 거? 그 말 들으니 입에 침 고인다. 말 나온 김에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조은지 그러자. 간 김에 맥주도 한 잔 하게.

카페를 나서는 두 아나운서의 등 뒤로 이상은의 노래가 흐른다.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간 끝나니까. 강해지지 않으면 더 걸을 수 없으니..." 둘은 그 길로 심학산 돌레길 초입의 한 식당으로 향했다. 툇이 들어간 시원한 된장국에 낙지, 전복을 함께 넣은 매콤한 코다리찌므로 허한 속을 달랜다. 너무 매워 맥주도 한 잔 곁들인다. 이썬시개 물고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다. 두 사람은 아쉬움을 달래듯 파주의 하늘에 눈인사를 보낸다.



〈 TRAVEL STORY 〉

조은지의 여행법

"여행의 맛은... 고단한 하루 끝에 만난 시원한 맥주 한 잔!"



김보경의 여행법

"여행은 모험이자 도전! 어떤 난관이든 웃으며 헤쳐 나가요"



overseas 대학 졸업을 앞두고 언니랑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맥주를 좋아한다. 펌이 문을 여는 시간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여행에 나선다. 일본 여행 때도 하루 세 번은 이자카야에 들러 생맥주를 마신 것 같다. 그러다 지치면 다시 펌에 들어가 맥주 한 잔 하고, 스위스를 추울 때 찾았는데, 힘들었지만 좋은 기억이 많다. 세탁비 아끼느라 호텔에서 빨래를 해서 잔뜩 널었더니, 너무 습한 나머지 숨이 막혀 새벽에 깬다. 어쩔 수 없이 그 추운 날 새벽 3시에 문 다 열어놓고 이불 뒤집어쓰고 잤다. 집 나가면 고생이었는데, 그걸 알고도 떠나는 게 여행이다.



domestic 대학생 때 '내일로'라는 7일짜리 철도 자유이용 패스를 사서 친구랑 여행을 다녔다. 이 표만 있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마음대로 기차를 타고 내릴 수 있다. 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 식으로 여행했다. 담양과 제천이 좋았다. 담양이야 대나무가 좋고, 쪽 뽕은 메타세쿼이아 길도 여름에 찾으면 시원하다. 제천은 의림지가 기억난다. 그날 비가 와서 오리배가 동동 떠 있는 저수지 풍경이 정말 멋졌다. 바로 옆에 허름한 놀이공원이 붙어 있었는데, 오래된 회전목마가 있는, 80년대 분위기가 나는 곳이었다. 노란 코닥필름 같은 아날로그 감성이 푸근하게 다가왔다. 아침, 비 오는 날에는 파전에 동동주를 꼭 마셔야 한다.

overseas 가까운 홍콩, 일본, 태국 등으로 자주 여행을 다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친오빠와 떠난 터키 여행이다. 별의별 일이 참 많았다. 오빠는 2륜, 나는 ATV라 부르는 4륜 바이크를 몰고 카파도키아를 지나는 데, 중간에 내 바이크의 기름이 뚝 떨어졌다. 바이크를 뒤에서 밀고 마을로 들어가 어르신께 도움을 청했더니 녹슨 쇠사슬을 구해주셨다. 그걸 오빠 오토바이 뒤에 걸고 주유소까지 갔다.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캐나다도 기억에 남아 있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빙산이 있는 로키산맥을 보고 자연의 장엄함을 깨달았다. 세상은 정말 넓구나, 내가 본 세계가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어릴 때라 그 충격이 더 컸다.

domestic 제주도가 참 좋다. 협재나 월정리 같은 곳도 유명하지만, 해안선을 따라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한적한 해변을 찾아다니는 것도 즐겁다. 섭지코지에 있는 카페에 앉아 바다 풍광을 보는 것도 추천한다. 부산도 추억이 많다. 아버지가 보수적이어서 외박을 금했는데, 23살 때 처음으로 여행을 허락해주셨다. 친구들과 떠난 첫 여행지라 더 각별하다. 내 이상형이 B형 부산 남자이기도 하고(웃음) 부산은 바다를 곁에 둔 아름다운 도시다. 해운대 포장마차에서 마시던 술맛도 더 좋다. 가면 마냥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다.



아이와 떠나는 신나는 세계여행!

KBS Kids 출발 키즈 드림팀 지구 한 바퀴 체험전

어린이전문채널 KBS Kids에서 기획한 <출발 키즈 드림팀-지구 한 바퀴 체험전>이 7월 2일 부산에 상륙했다! KBS 인기 중영 프로그램 <출발 드림팀>의 어린이 체험전 버전으로, 세계 5대륙 5대양을 돌며 신나는 대결을 벌이고, 각종 미션을 수행한다. 리우올림픽을 맞아 각국의 올림픽 우세 종목은 온몸으로 즐기고, 아마존 정글 체험, KBS Kids의 인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체험으로 아이들 감성을 일깨운다. 무더운 여름, 아이들과 함께 부산 벡스코를 찾아 세계여행을 떠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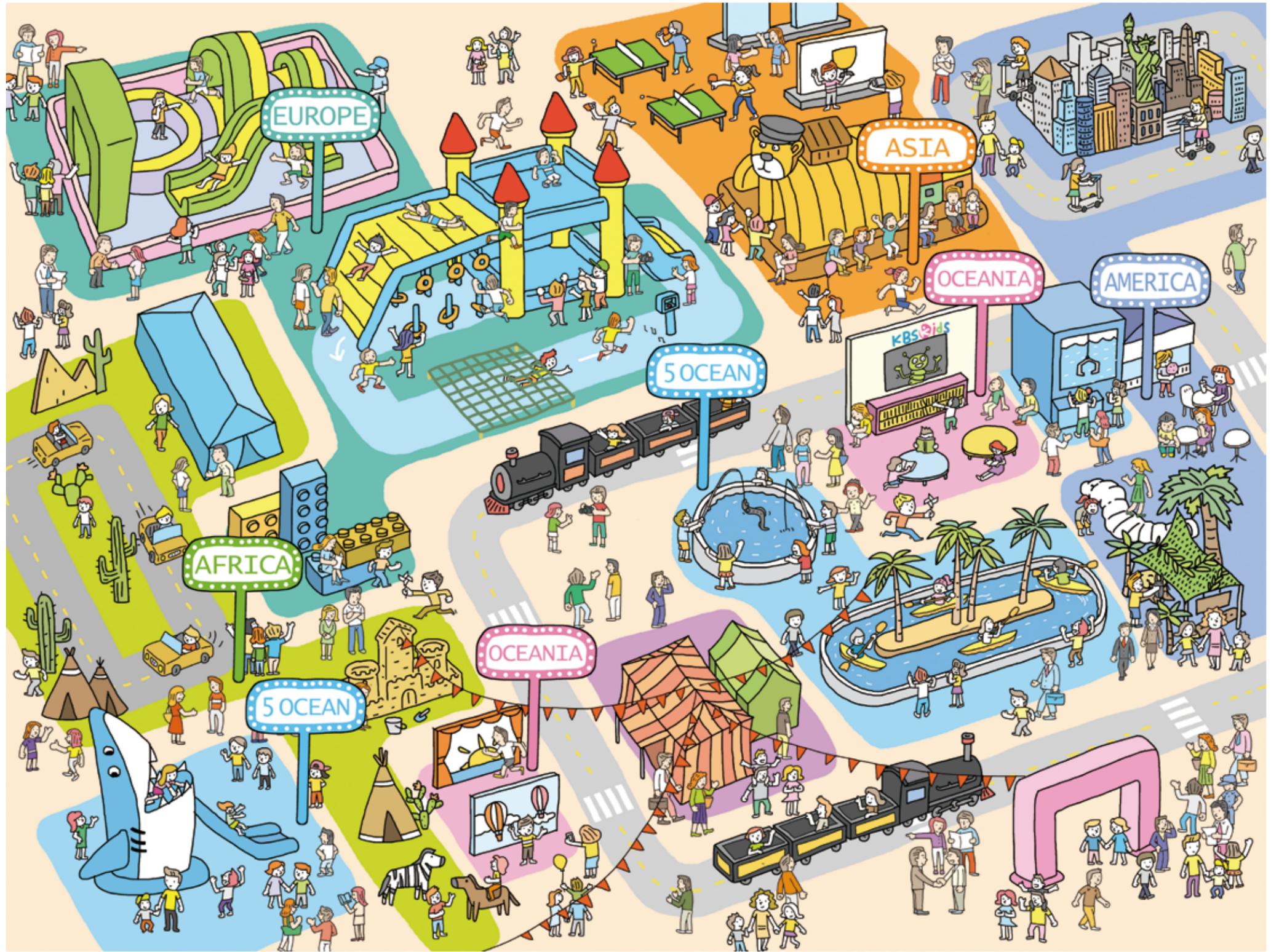
- ✓ 어린이 선호도 1위! 부모 만족도 1위! 국내 최고의 체험전
- ✓ 매 시즌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최고 흥행 어린이 체험전
- ✓ 안전은 기본! 다양한 체험과 교육이 함께하는 감성 체험전

One Playing Experience

KBS Kids <출발 키즈 드림팀-지구 한 바퀴 체험전>은 5대륙 5대양으로 구분된 20개 체험존에서 어린이 성장에 꼭 필요한 신체놀이, 두뇌개발, 감성교육을 즐길 수 있다. 드림팀 스포츠 빌리지에서 벌이는 흥미진진한 대결, 아시아 선수촌에서 즐기는 올림픽 스포츠, 태평양 보트 횡단, 사하라 사막 횡단 레이싱 등 신나는 체험들로 넘쳐난다.

이번 체험전은 '월드미션 수행'으로 더 흥미진진해졌다. 5대륙 5대양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면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서둘러 입국 심사대를 거쳐 미션 수행에 나서자! <출발 키즈 드림팀-지구 한 바퀴 체험전>은 8월 말까지 두 달간 이어진다.

기간 2016년 7월 2일 ~ 8월 31일
장소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C, D, E, F홀
운영 시간 10:30 ~ 18:00 (입장 마감 오후 5시)



입장료

일반권	어린이	18,000
	성인	12,000
시즌권	어린이	36,000
	성인	30,000
할인 30%	장애우(동반 1인)/만 65세 이상/국가유공자	
무료입장	24개월 미만 무료(증빙 필요)	

홈페이지 <http://www.kbsn.co.kr/dreamteam>

AFRICA

아프리카 대륙

전동차를 타고 이집트를 거쳐 사막을 횡단하는 레이싱이 벌어진다. 얼룩말 인형을 타고 킬리만자로의 대초원을 거니는 '오! 마이 포니', 물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고통에 공감하는 '소중한 물이야기' 부스가 있다.

EUROPE

유럽 대륙

유럽의 근대 5종 경기가 '출발! 키즈 드림팀'을 위한 어린이 미션 챌린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미로 통과, 클라이밍 등을 엮은 재미난 대결 코스를 갖는다. 또 옥스포드 블록으로 나만의 건축물을 만들어볼 수 있다.

ASIA

아시아 대륙

1988 서울올림픽을 '호돌이'로 재현했다. 아시아 선수촌에서 체조, 골프, 하키 등 다양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다. 메달을 받는 시상대 포토존,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신기방 기공연장' 무대, 아빠들을 위한 휴게소도 있다.

AMERICA

아메리카 대륙

정글짐을 오르내리고, 쌍성 Y보드를 타고 미국을 횡단한다. 자연소리 교구를 통해 정글에서 온갖 소리를 들을 '아마존 정글 소리체험'도 할 수 있다.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다.

OCEANIA

오세아니아 대륙

KBS Kids의 인기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만화영화 상영관이 있다. 인기 캐릭터 로봇텍스를 활용한 팽이대전, 플렉서 놀이터 등이 자리하고 있다.

5 OCEAN

오대양

여름에 빠질 수 없는 게 물놀이이다. 범퍼보트에 올라 직접 페달을 밟아 풀을 한 바퀴 도는 '태평양 보트 횡단', 낚시대로 부산 기장 공장을 낚는 재미도 있다. 또 조스 슬라이드 미끄럼틀, 카리브해 보물찾기에도 도전해보자.



물총 들고
ARE YOU READY?
WATER BOMB 2016

물폭탄 시계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워터파크보다 시원하고 짜릿한, 도심 속 썸머 뮤직 페스티벌이 찾아온다.
물에 흠뻑, 음악에 흠뻑 젖을 일만 남았다.



물총싸움? 어른들도 참 좋아한다. 마땅히 뛰어놀 기회가 없어 망설였을 뿐. 올해도 어김없이 잠실에서 물폭탄이 터진다. 작년에 이어 '워터밤(WATER BOMB)' 페스티벌을 기다린 팬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워터밤은 관객들이 물싸움을 펼치는 '참여형 뮤직 페스티벌'로 첫 회에만 2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만큼 핫한 여름 음악 축제도 없었다. 바캉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도심 한가운데에 모두 구현했다. 수영장을 설치하고, 모래를 깔고, 비치베드를 놓았다. DJ와 힙합 크루들이 무대에서 물을 쓰고, 관객들은 그 물을 맞으며 환호한다. 한여름에 땀뻘뻘이 되기보단 물을 맞는 게 백 번 낫다.

ALWAYS MUSIC!

뉴욕 출신 헤비 베이스의 최강자 DJ 킬 더 노이즈가 워터밤을 통해 첫 내한을 확정지었다. 또한 힙합 레이블 AOMG의 사이먼 도미닉, 그레이, 로꼬를 비롯해, 실력파 DJ 웨건, DJ 펄킨이 무대에 오른다. 여기에 제시와 DJ KOO, MC 프라임, 인사이드코어, 에스투, 반달락,

맥시마이트, 준코코, 디아이디, 피치에이드 등이 출연한다.

WATER BOMB! POOL, GAME, FUN!

작년보다 더 강력한 물폭탄이 찾아온다. 또 특수 제작한 무대를 통해 아티스트들이 관객들과 물싸움을 하면서 더욱 실감나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댄스 퍼포먼스, 무대가 한눈에 보이는 대형수영장 등으로 다른 음악 축제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즐거움을 안긴다.

BLUE vs RED

올해도 어김없이 티켓 예매 시 블루와 레드 중 원하는 팀을 선택할 수 있다. 관객과 아티스트가 팀을 이뤄 상대팀과 치열한 물총 대결을 벌인다. 나중에는 팀 따위는 잊고 처음 본 사람들과 물총질을 하며 흠뻑 젖게 된다. 언더그라운드를 대표하는 실력파 뮤지션, 스타 연예인의 참여로 라이브 공연과 예능 배틀도 펼쳐진다.



WATER BOMB
WATER DANCE MUSIC & PERFORMANCE

<워터밤 2016>

일정 : 7월 30일 토요일, 쇼타임 15:00~22:30

장소 : 잠실 종합운동장 특설링

주최/공동기획 : KBS N

주관 : VU엔터테인먼트

예매 : 1차(66,000원), 2차(77,000원), 현장(88,000원)



LINE UP



KILL THE NOISE
킬 더 노이즈

DJ 스크릴렉스가 인정했다. 강력한 사운드와 거침없는 카리스마로 헤비 베이스 뮤직의 최강자로 불리는 킬 더 노이즈를 워터밤에서 국내 최초로 만날 수 있다.



SIMON DOMINIC, GRAY, LOCO
사이먼 도미닉, 그레이, 로꼬

대한민국 힙합 신을 이끄는 가장 트렌디한 힙합 레이블 AOMG. Mnet <쇼미더머니5>의 심사위원이기도 한 사이먼 도미닉과 그레이, 음원차트 올킬 래퍼로 통하는 로꼬가 함께한다.



JESSI
제시

솔직한 매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무장한 걸크러쉬의 아이콘.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언니씨의 멤버로도 활약 중이다. '워터밤 2015'에 이어 2회 연속 출연 확정.

함부로 애뜻하게 중독성 있는

김우빈과 배수지의 조합이다. 더 말해 무엇 하라. 멜로는 기본, 까칠과 찌질에 코믹까지 갖췄다. 가을의 애뜻한 감성을 이 여름에 느껴보자.



6월 16일 공개된 <함부로 애뜻하게>의 4차 티저 영상. 수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온다. “그만 좀 퉁기고 다큐 찍읍시다. 포삼도 장난 아니게 해드릴게요.” 4년 전 영화 <건축학개론>의 ‘국민 첫사랑’ 배수지는 잊어버리자. “저 상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안 받아 쳐먹었어요”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속물 피디가 되어 돌아왔다. 원가 ‘애뜻한’ 모습을 기대했다면, 누가 ‘함부로’ 막 대하는 모습에 움찔할지 모른다. 그래도 좋다. 그 갑질의 장본인이, 노래도 되고 연기도 되는 톱스타 김우빈 이니까.



character 안하무인 톱스타와 속물 피디의 조합

신준영(김우빈 분) 배우와 가수를 넘나드는 이 시대 최고의 엔터테이너. 준영은 도도하고 까칠하고 건방진다. 팬서비스 정신이라고 버릇의 눈곱만큼도 찾기 힘든, 슈퍼 갑 우주 대스타. 하지만 5년 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던 여자가 다큐를 찍는 피디가 되어 눈앞에 나타나면서 감정의 혼란을 겪는다.

노을(배수지 분) 낯은 국방색 잠바때기 하나로 한 계절을 나는,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은 더더욱 없고, 이해관계만 맞으면 타협하는 영세 프로덕션의 다큐 피디. 탐사프로 피디도 연예인 다큐 찍는다. 왜냐고? 돈이 되니까. 어째 이름도 억울한 ‘을’이지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 정의감 넘치고 오지랖 넓은 그녀에게 닥친 두 번의 사고가 삶을 백팔십도 바꿔놓았다.

report 맨살 같은 애뜻한 사랑 이야기

KBS 2TV의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뜻하게>가 7월 6일 첫 방송에 들어간다. <태양의 후예>를 잇는 사전 제작 드라마로, 방영 전부터 술한 화제를 몰고 왔다. 어린 시절 가슴 아픈 악연으로 헤어졌던 두 남녀가 다큐멘터리 피디와 안하무인 톱스타가 되어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집필을 맡은 이경희 작가는 “어떤 대본도, 편집도, 설정도, CG도 없는 준영과 을의 맨살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말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죽일 놈의 사랑>, <고맙습니다> 등 최고의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의 작품이라 더 기대가 크다.

KBS 2rama 토요일 오후 4시 20분 방송

KBS 2TV 수목 밤 10시 (7월 6일 첫 방송)

7월, KBS N의 새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속터지는 육아? 팬부심 야구 버라이어티?

속터지는 육아일기 <엄마는 고슴도치>가 시즌2로 돌아온다. 여기에 팬부심을 자극하는, 이제껏 접하지 못한 야구 생방 버라이어티 <불평등한 야구의 성지>가 새롭게 시작된다.

7월, KBS N의 새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하나는 ‘컴백’이고 하나는 ‘론칭’이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 층이 갈린다. 한쪽은 여성, 한쪽은 아무래도 남성이다. 육아냐, 야구냐? 이렇게 가르고 보니 반발이 거세다. “나도 애 아빠지만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속 터진다구요!” “야구는 남자만 보란 법 있나요? 여자 팬이 얼마나 많은데!” 워워, 다들 왜 이러시나. 방송 날짜, 시간대 안 겹친다. 그러니 보고 또 봐주시라.

comeback

시즌2로 돌아오는 육아 공감 예능 <엄마는 고슴도치>

지난 6월 14일 종영된 KBS Drama <엄마는 고슴도치>는 매회 꾸준한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며, 1%를 넘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여러 번 경신하는 등 안방극장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에 힘입어 오는 7월 21일 목요일, 시즌 2로 새롭게 돌아온다. 기존 출연자인 현영, 변기수, 최철호에 이어 배우 이현경이 새로 합류한다.

<엄마는 고슴도치>는 아이들의 참모습과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관찰 카메라’, ‘거짓말 테스트’ 같은 새로운 장치를 선보이며 예능의 재미에 육아 정보를 더했다. 아이들의 돌발 행동과 순수한 속마음은 엄마 미소를 절로 짓게 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등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시즌 2에서는 ‘관찰 카메라’와 ‘거짓말 테스트’ 코너를 한층 보강한다. 또 아동전문의의 의견을 더해 육아 정보를 강화하고, 시청자들의 사연과 의견을 실험 콘셉트에 반영할 예정이다.

KBS 2rama

7월 21일 첫 방송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launc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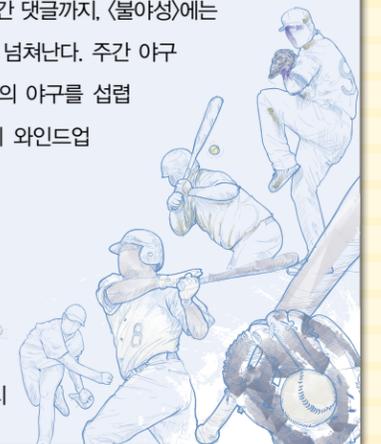
야구 생방 버라이어티의 혁명 <불평등한 야구의 성지>

<불평등한 야구의 성지>, 일명 <불야성>이다. 일찍이 이런 예능은 없었다. 게다가 월요일 밤 9시 생방이다. 야구 경기가 쉬는 날이라 팬들 소환하기 딱 좋다. 룰은 이렇다. 프로 야구 10개 구단을 대표하는 연예인 덕후를 한자리에 모은다. 선후배, 나이, 인기도 다 필요 없다. 오직 본인이 응원하는 팀의 주간 야구 성적으로 계급을 매긴다. 철저한 성적지상주의다. 하위권 팀은 철저히 모든 혜택에서 배제된다. 대신 1위 팀 팬에게 유채색 못지않은 권한과 보상이 주어진다. 오프닝 단독 컷, 자리 배치 권한, 간식 지급 등. 출연료도 가장 많이 받아간다.

나랑 같은 팀을 응원하는 연예인은 누굴까? 1위 팀 대표 연예인의 갑질, 팬들끼리 물고 물리는 디스전, 화제의 경기를 두고 벌이는 토크 수다, 부당한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까지, <불야성>에는 온갖 새로운 시도가 넘쳐난다. 주간 야구 하이라이트로 한 주의 야구를 섭렵하는, 팬부심 예능이 와이드업에 들어갔다.

KBSN SPORTS

7월 중 첫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프로야구 매거진의 듬직한 에이스



글 김선영 TV평론가

울해는 야구 본게임보다 장외 경쟁이 더 치열하다. 독주 체제가 굳어진 리그와 달리, 프로야구 매거진 프로그램은 춘추전국시대. 그중 <알럽베>는 곳곳이 원조의 품격을 보여준다.

2009년은 프로야구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해였다. 최단 기간 최다 관중 기록이 경신됐고, 초고속카메라, 야구 전문 카메라맨 등이 투입되면서 중계 기술도 한층 진화했다. 절정은 국내 최초 야구매거진 프로그램 <아이러브 베이스볼>(이하 <알럽베>)의 등장이었다. 신속한 정리와 깊이 있는 리뷰를 동시에 보여주며, 스포츠뉴스 부록과도 같은 하이라이트 영상이 충족시켜주지 못한 야구팬들의 '덕심'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여성 아나운서를 전면에 내세운 진행도 파격이었다. 선수 인터뷰나 주요 소식을 전하는 현장 리포터 역할에 그쳤던 여성 아나운서가 전문 프로그램의 중심이 된 것. 초대 MC 김석류 아나운서는 '야구 여신'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당시 필자 역시 이 신선함 때문에 야구 '본방'보다 <알럽베>를 열심히 챙겨봤다. 2009년은 타이거즈가 13년 만에 우승을 거둔 해이기도 했다.

전통과 새로움을 모두 갖추다

<알럽베>의 성공은 후발주자를 속속 등장시키며 야구 매거진 프로그램 전성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형식이 모두 유사하다는 점에서 원조의 의의는 더욱 커진다. 경기 하이라이트와 분석, 여성 아나운서의 진행이라는 핵심은 <알럽베>를 통해 일찌감치 완성되었다. 그러나 원조의 선점 효과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재미와 깊이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알럽베>는 야구팬들 사이에서 경기 분석이 뛰어난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다. 속보 방송임에도 다양한 기록으로 내용이 풍부하다. 예컨대 한화와 NC의 6차전(6월 21일 경기) 리뷰에서 수훈 선수 송광민에 대한 기록이 그렇다. 올 시즌 볼카운트가 3볼일 때 홈런이 나온 사례를 열거하며, 접전 상황에서 포볼 대신 타격을 선택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새로움도 강점이다. <알럽베>는 김석류 이후로도 최희, 윤태진, 정인영 등 신예 스타 아나운서들을 계속 탄생시켰다. 스타 영입으로 경쟁 구도를 유리하게 끌어가기도 주로 자체 '팜시스템'에서 신예를 발굴한 것. 올해도 이를 통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이항 아나운서의 경우 타 방송사에서 이적했지만, 메인인 오효주 아나운서는 자사 육성 기대주다. 현장 리포터 시절부터 예리한 인터뷰로 두각을 나타내더니 갈수록 안정된 진행을 보이고 있다. 새롭게 정비된 '웰컴 야구가 좋다'도 주목할 만하다. 야구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이 코너는 시의성이 있고, 성찰적인 기획이 돋보인다. 청소년부터 통역까지 '그라운드'의 숨은 조력자를 조명하거나 관중들의 '비매너 응원문화'를 다룬 회차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원조이면서 혁신적이기까지 한 그 어려운 일을 <알럽베>는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



<아이러브 베이스볼>은 김석류, 최희 같은 '야구 여신'을 배출했다. 현재 오효주, 이항 아나운서가 생방을 진행하고 있다.



축구로 맺어진 인연



캠거루 가족에 탱크창, 가성비 최고의 축구화. 키카(KIKI) 하면 떠오르는 말이다. FC 서울 최용수 전 감독의 말도 이를 뒷받침한다. "내가 공을 찰 땐 국산 축구화를 신고 뛰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나도 90년대 중반까지 키카를 신고 많은 골을 넣었다. 내겐 추억이 많은 축구화다."

효창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린 게 1983년이다. 변변한 구장이 없어 먼지 풀풀 날리는 맨땅에서 공을 찼다. 잔디에 맞춰 생산한 유명 브랜드의 축구화는 밀창의 징(스터드)이 너무 빨리 닳았다. 하지만 키카 축구화의 '탱크창'은 달랐다. 1년을 신어도 새것 같았고, 발볼이 넓은 동양인의 족형에도 잘 맞았다.

축구로 맺은 인연, 15년 지기

키카는 KBS N과 인연이 깊다. 15년 전 SKY KBS의 주주사로 참여했고, SKY KBS Sports가 제정한 '2002 대한민국 축구대상 시상식'을 후원하기도 했다. KBS 신관 로비에서 열린 행사에서 MVP와 신인상, 득점왕 등 17개 부문 25명의 선수가 상을 받았고, SKY KBS Sports에서 이를 생중계한 바 있다.

키카는 김휘 회장이 1981년에 창립했다. 아디다스 축구화가 국내 제품보다 열 배 넘는 가격에 팔리던 시절 '최고의 축구화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했다. 김 회장은 1996년에 한국 유소년축구연맹을 만들어 20년간 유소년 축구 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김대길 키카 사외이사의 말을 들어보자.



"어릴 때 키카 축구화 신고 공을 찬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한때 시장 점유율이 90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했죠. 글로벌 회사들이 키카 축구화를 잘라서 연구할 정도였으니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전후로 아디다스나 나이키가 한국시장에 큰 투자를 하면서 위세가 꺾이긴 했지만, 제조와 유통을 겸하는 전략으로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기술력만으로 승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세련된 디자인과 장인정신이 깃든 축구화, 가격 경쟁력 등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K777R, 제브라 시리즈와 같은 축구화는 물론, 창립 35주년을 맞아 출시한 축구공 컨트롤까지 키카의 도전은 계속된다.

키카의 후원으로 2002년 12월 20일에 '대한민국 축구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K777R-K

N challenge

점프, 점프, 점프 KBS N 인턴 현장교육

처음에는 슷기 없이 굴더니, 구렁이 떨어지자 땅을 박차고 슷구친다. KBS N 인턴들이 뛰기 시작했다. 당신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한다.

13명의 인턴들이 6월 1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어리둥절하기만 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일명 OJT(On the Job Training)라 불리는 현장 직무교육. 6월 13일부터 5일간 진행된 교육의 목적은 KBS N의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데 있다. 인턴들은 잠실에서 열린 LG와 NC의 야구중계 현장을 찾아가 하면, 분야별 방송 전문위원들의 강의를 들었고, 선배들과 명함을 교환하라는 미션에 땀을 뻘뻘 흘리며 회사 곳곳을 뛰어다녀야 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OJT의 백미는 UCC 제작. 3개 조로 나뉘어 '일의 의미'라는 주제로 UCC를 제작해 마지막 날 발표회를 열었다. 6월 15일, KBS 본사 견학 현장에 동행해 그 주인공들을 만났다.



#1

〈아침마당〉에 발도장 꼭

KBS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본사 내부의 스튜디오, 소품실, 출연자 대기실 등을 돌아봤다. 윤인구, 이금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아침마당〉 세트장이다. 아침마다 보던 TV 생방송 세트장에 선 기분이 얼떨떨하고 신기하다.



#2

뉴스는 역시 KBS

신관으로 이동해 보도본부를 둘러봤다. 〈KBS 뉴스 9〉이 진행되는 스튜디오 내부다. 대본을 비춰주는 프롬프트가 장착된 카메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설명을 듣는 13인 표정이 다들 제각각이라 재미있다.



#3

열혈 회의 중?

김보람, 배동규, 한동근, 우병우

카페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촬영 회의에 들어간 모습이 영락없는 학구파들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러브 베이스볼〉을 패러디한 UCC 〈아이러브 KBS N〉에 들어가는 중간광고 촬영 중이란다. 깜빡 속았다. 놀라운 연기력에 박수를 보낸다.

#4

움직이면 쏘대! 꼼짝 마!

정승준, 정지은, 문경윤, 김현우, 김주홍

무슨 UCC를 만드느냐고 물으니,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들에게 점거당한 KBS N을 인턴들이 지키는 내용이란. 황당한 설정에 웃음이 났지만, 막상 리허설을 접하니 엉뚱한 모습들이 귀엽고 재미있다. 한데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 느낌은 뭐지?

#5

함부로 우아하게

최종안, 황희지, 손태호, 이한준

이 녀석들, 슬쩍 다가가보니 UCC 촬영하느라 여념이 없다. 모두가 킥거리며 지켜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콘셉트를 물으니 10년 뒤에 면접을 보는 내용이라고, 무슨 영상을 내놓을지 도무지 감이 안 온다. 뭔가 재미난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요 KBS N 우수직원 8인 해외포상휴가 다녀와

남국의 바다를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다. 이 맛에 일한다



지난 한 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수한 실적으로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KBS N 직원들에게 해외포상휴가의 기회가 주어졌다. 올해 선정된 총 8명의 직원들은 각각 코타키나발루와 세부로 떠나, 자물 일정에 맞춰 가족 또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KBS N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본 제도를 만들어 유지해왔다. 그동안 많은 직원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포상휴가에서는 스노클링, 호핑 투어 같

은 수상레포츠 체험은 물론 바비큐 파티, 시내 관광을 하며 알차게 4박 5일 동안 힐링했다는 후문이다.

가족들과 함께 포상휴가를 다녀온 크로스미디어팀 김현상 팀장은 "실적 달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번 휴가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물론 가족들과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며 "이러한 복지 혜택을 더 많은 직원들이 누렸으면 한다"는 바람을 남겼다. 기회는 내년에도 찾아온다. 실망하지 말고 도전하자.



휴가의 기쁨을 점프!



시내 관광 중 다 함께 찰찍!



가족과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뛰는 2년 제9대 KBS N 노동조합 출범식

이제 새 마음으로 앞으로 2년을 함께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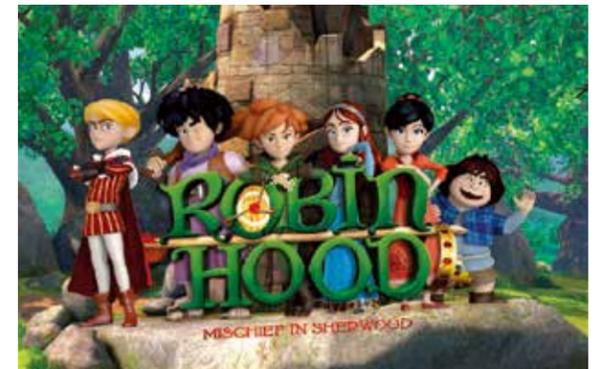
지난 6월 10일(금) 제9대 KBS N 노동조합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5월 30일, 31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 결과 전기환 위원장과 윤영석 부위원장이 당선되었다. 지난 8대에 이어 위원장직을 연임하게 된 전기환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그동안 회사 직원들이 언급한 정책들을 앞으로 효과적으로 펼치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날 출범식에는 KBS 연대 위원장, KBS N 이준용 대표이사 등 귀빈들과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노동조합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제9대 KBS N 노동조합 집행부 구성원으로는 전기환 위원장과 윤영석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재관 노사협력국장, 김성백 정책국장, 김하영 홍보국장, 홍성표 사무국장이 선임되었다.



KBS Kids 여름방학 특집 애니메이션 〈로빈후드〉와 〈피터팬〉 단독 편성

로빈후드 7월 22일(목) 낮 12시 첫 방송
피터팬 7월 23일(금) 낮 12시 첫 방송

여름방학을 맞아 KBS Kids 채널에서는 명작 애니메이션 〈로빈후드〉와 〈피터팬〉을 단독으로 특집 편성한다. 오직 KBS Kids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고전 명작을 현대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탄탄한 스토리, 친근한 캐릭터, 아름다운 영상과 색감으로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KBS Kids 채널 담당자는 "아이들의 시청 시간이 늘어나는 여름방학에 맞춰 명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해, 부모들이 믿고 보여주는 채널로서 KBS Kids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는 말을 전했다. 〈로빈후드〉는 7월 22일(목) 낮 12시에 첫 방송되며, 〈피터팬〉은 다음 날인 7월 23일(금) 낮 12시에 첫 선을 보인다.



Notice

지구를 획돌아요
구석구석다같이
한바퀴를 돌아요
바닷가부산에서
퀴즈풀듯신나게

KBS Kids 출발 키즈 드림팀

지구 한 바퀴 체험전

연제 2016년 7월 2일 ~ 8월 31일
어디서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 ★ **관람시간,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나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음식을 반입은요?**
가능합니다. 단, 주류나 라면 등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안 됩니다. 애완동물은 입장 불가.
- ★ **행사장 내 촬영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가족과의 즐거운 추억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간호사가 있는 의무실,
아기를 위한 수유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 **아빠들은 가서 뭐 해요?**
아이들과 간단한 스포츠를 즐기며
실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돗자리 존까지 있습니다.
실내라 시원해요.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N pick

Enjoy,
Your Summer

일찍 찾아온 여름, 얼마만의 근교 나들이인지 모른다.
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좋았다.
KBS N 신입 아나운서가 되어 바쁜 스케줄 소화하느라
여행은 엄두도 못 냈다.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다.
아직 휴가를 못 간 분들께 에어컨 바람 같은
기를 불어넣어 드린다. 후~



조은지(뒤), 김보경(앞) 아나운서가 여러분의 여름을
응원합니다.



2016. 07.02(토) ~ 2016.08.31(수)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4C,D,E,F, Hall

문의 051-740-4030 단체문의 (남수진기획) 051-742-7790 | www.kbsn.co.kr/dreamteam

주관 KBS N 후원 KBS 부산방송총국

협찬 동아오츠카 동아제약 unicef UNICEF for children COSPOD PAPA YOUNG FLEXA 중이비인후과 국민시력 kids park

여행의 맛은...
고단한 하루 끝에 만난 시원한 맥주 한 잔!

조은지 아나운서



여행은 모험이자 도전!
어떤 난관이든 웃으며 헤쳐 나가요.

김보경 아나운서